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5년도 제8호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사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합니다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단독 인터뷰

[창간 인터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침체한 한국 체육에 불 지피는 기적 이룰 것”

박종민 한스경제 기자

"남자 선수들이 여자 선수들을 때리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지 않겠다."

[데스크칼럼] 트럼프 2.0 시대, 스포츠계도 '카오스'

차상엽 머니S 기자

‘서울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기덕 서울시의원, ‘스포츠클럽,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규정 마련

서울신문 온라인뉴스팀

대한씨름협회 2025년도 심판, 지도자 강습회

영남대 씨름부, 2년 연속 '대학부 우수팀' 선정...허용 감독 우수지도자상 수상

구대선 아시아경제 기자

지난해 7월 한식당서 "애 갑바 봐 여자 D컵은 될 것 같아"

스포츠윤리센터, 성희롱 의혹 강원지역 체육회장 조사

한귀섭 뉴스1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1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창간 인터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침체한 한국 체육에 불 지피는 기적 이룰 것”

유승민(43) 대한체육회장은 ‘기적의 사나이’로 통한다. 2004 아테네 올림픽 때 중국 대표팀 에이스 왕하오를 4-2로 누르고 금메달 획득했으며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때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선거에서 2위로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도 이기흥 회장 등 쟁쟁한 후보들과 맞붙어 당선 영예를 안았다.

지난달 28일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한 유승민 회장은 새로운 기적을 꿈꾸고 있다. 창간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한국스포츠경제는 마찬가지로 혁신을 기대하는 유 회장을 만나 현안과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대한체육회

유 회장은 우선 대한체육회에 대해 “구성원들 모두가 의견을 내고 소통할 수 있는 조직, 능동적이고 역동적이며 에너지 넘치는 빠른 조직으로 이끌고 싶은 게 목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체육은 건강하고 익사이팅하고 역동적이다. 그런데 행정에서 속도가 느리고 수동적이면 맞지 않다. 빠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체육회는 ‘유승민 체제’가 되면서 기존 5본부 3실 19부 2팀 1사무소의 직제를 6본부 5실 1센터 18부로 바꿨다. 직제 개편의 핵심은 회장 직속 마케팅실을 새롭게 설치하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내에 선수·지도자지원부와 꿈나무육성부를 신설하는 것이다. 인사 핵심 키워드는 ‘능력’과 ‘젊은 감각’, ‘여성’이다. 최연소인 39세 권휴진 예산부장을 비롯해 1980년대생이 5명이나 이름을 올렸다. 부장급 이상 인사에서 김보영 신임 기획조정본부장을 포함해 여성 13명이 간부로 뽑혔다. 김보영 본부장은 대한체육회 사상 여성 최초로 기획·총괄 사령탑에 선임됐다.

유 회장은 당장 학교 체육과 지방 체육 개혁에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그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회장을 맡게 됐다. 체육계는 구조적,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 돌려놔야 하는 게 제 임무다. 부담되고 책임감도 크게 느낀다”라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당선 과정에서 나이 등 편견을 넘으려고 2~3배 노력을 기울였다. 진정성을 보여줬다”는 유 회장은 “상대가 도와주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리더십이 있는 것 같다. 한 기업인으로부터 ‘유 회장은 너무 부지런해서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 진정성으로 정면승부를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다”고 전했다.

유 회장은 20여 년 전 국가대표 시절 선수촌에서도 체력은 손꼽혔다. “‘톱10’에는 들었다”고 다소 겸손해했지만 실제로는 ‘톱3’ 수준이었다는 게 당시 선수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체력, 열정, 진정성까지 갖춘 유 회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편이다.

유 회장은 당선 때 셀 수 없이 많은 축하 문자를 받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 아버지로부터의 문자다. 체육계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유 회장은 “있어서 안 될 일들은 없어져야 한다.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 아직 존재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여러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 할 것 같다. 대한체육회 산하 조직들에도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다. 선수뿐 아니라 지도자 인권도 중요하다. 함께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글로벌 중심의 K-스포츠 기대

유 회장은 학교 체육과 생활 체육, 엘리트 체육이 함께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회장은 “은퇴 선수 중 생활 체육을 하는 분들이 많다. 생활 체육 동호인 중에는 운동 선수 학부모들이 꽤 많다. 엘리트 체육은 생활 체육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어떤 선수가 용품을 후원받는다고 하면 구매 주체는 생활 체육 동호인들이다. 같이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통합체육회가 출범되면서 함께 가야 한다”고 짚었다.

이기흥 회장 체제에서 대립각을 세웠던 문화체육관광부와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당선 후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만나 지원과 협력을 약속받았다. 유 회장은 “좋은 시그널을 받았다. 협조할 건 협력하되, 다름이 있다면 인정하고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집중하겠다. 마냥 싸우는 건 좋지 않다. 물론 꼭 지켜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강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스포츠 산업의 확장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세계 시장보다 국내 시장은 턱없이 작은 규모인 것 같다.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저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이다. 에이전트 시장만 봐도 그렇다. K-스포츠가 글로벌화되면 스포츠 산업도 해외로 나갈 수 있다. 수출돼 세계의 인정을 받으면 산업 규모가 커진다. 후원 유치가 이뤄지고 협력도 이뤄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유 회장의 공약 중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글로벌 중심의 K-스포츠다. 그는 “올림픽 등 국제대회 성적을 떠나 대한민국 스포츠가 갖고 있는 가치, 스토리를 더 창출해 글로벌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K-팝, K-드라마 등의 한류도 한순간에 된 게 아니다. K-스포츠 선수들도 멋있고 스토리가 좋다. 전 세계 팬덤이 생길 수 있다. 방탄소년단(BTS)도 고생 끝에 전무후무한 그룹으로 거듭났다. K-스포츠를 어떻게 세계적으로 알리고 끌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기적의 사나이’인 유 회장은 역대 대한체육회장들 중 가장 많은 후원액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전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그는 “침체해 있는 한국 체육에 불을 지피는 기적을 바라보고 있다. 유소년·노인·엘리트·학교·여성 체육, 스포츠 산업, 스포츠 미디어 등 모두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가 불을 지펴보고 싶다는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선거 때) 모든 체육인이 변화에 대한 열망 보여주셨다. 기대에 부응하고자 정말 열심히 할 것이다. 제 능력도 중요하지만, 함께 할 때 더 큰 결과물이 나온다고 믿고 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그는 “사실 스포츠와 경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경제가 좋아졌을 때 스포츠 활동이 늘어나고, 스포츠 산업군이 발전했을 때 스포츠 현장도 발전한다. 창간 10주년을 맞은 한국스포츠경제 역시 나날이 발전해 나가면 좋겠다”는 축하 인사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데스크칼럼] 트럼프 2.0 시대, 스포츠계도 '카오스'

"남자 선수들이 여자 선수들을 때리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지 않겠다."

잘 알려진대로 도널드 트럼프 2기 체제가 지난 1월20일(이하 현지시각) 공식 출범했다. 트럼프는 취임 당일에만 26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전임 대통령 조 바이든 정부 색깔 지우기에 나섰다. 취임 이후 한 달 여만에 서명한 행정명령만 70개를 훌쩍 넘겼다.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1·6 국회의사당 폭동 관련자 전원 사면 ▲정부효율부 신설 ▲출생시민권 폐지 등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될만한 다양한 조치를 취임과 동시에 시행했다.

관세, 이민자 등 몇몇 키워드로 관심이 쏠렸지만 트럼프 재집권으로 큰 혼돈에 빠진 분야가 또 있다. 바로 스포츠계다. 트럼프는 지난 1월27일 트랜스젠더 군인 퇴출에 이어 지난 5일에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잇달아 서명했다. 세계적 흐름에 반해 성별을 남녀 이분법으로만 구분짓겠다는 의지다.

성전환 선수의 여성 스포츠 참가 여부는 국제 스포츠계의 뜨거운 감자다. 물론 트럼프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없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더 많은 토론과 공감대 형성 과정이 필요한 이슈다.

실제로 지난 2024 파리올림픽 당시 여자 복싱 66kg급 금메달을 획득한 이마네 칼리프(알제리)와 57kg급 금메달리스트 린위팅(타이완)은 상대 선수들을 일방적으로 몰아친 끝에 압도적인 기량으로 정상에 올랐다. 이들을 상대한 대부분의 선수들은 불공정을 주장하며 IOC를 비판했다. 하지만 이들의 성별을 거론하지 않고 패배를 받아들인 상대 선수들도 없지 않았다.

이들의 출전을 관장하는 단체의 목소리도 엇갈린다. 국제복싱협회(IBA)는 앞서 이들을 'XY염색체'를 가진 생물학적 남성으로 규정해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허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림픽을 관장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성별의 구분을 '여권상에 표기된 내용'으로 해석해 이들의 올림픽 출전을 허가했고 나란히 금메달을 따냈다.

이처럼 스포츠계에서 성별 구분은 각 단체별로 해석이 다를 정도로 아직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 내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적용하느냐는 전적으로 미국의 문제지만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 같은 국제 이벤트에서 강제로 적용할 경우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차기 미국 대선은 2028년 11월이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집권 기간인 2028년 7월 로스앤젤레스(LA)올림픽이 열린다.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트럼프의 입장은 성전환 선수들의 출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입국 자체를 막아설 가능성이 충분하다.

아직 3년도 더 남은 2028 LA올림픽을 미리 걱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소통과 타협 없는 일방적 명령을 고수하는 트럼프라는 점 그리고 그가 적어도 향후 4년간은 미국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국제 스포츠계 선수 성별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스포츠클럽,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규정 마련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각종 체육사업 관련하여 최일선에서 활동하면서도,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열악한 대우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강화를 통해 일자리 마련 및 수준 높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인권 보호는 물론 일·가정 양립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최근 건강 및 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체육시설인 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을 통해 체육시설 활성화 및 시민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스포츠클럽’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정비(안 제2조제1호) ▲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근거 규정 신설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그리고 ▲체육시설인 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에 대해 규정(안 제9조의2)를 주요 개정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본 조례에서 주요 신설된 개정 조항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및 노동권 보호(안 제7조의2)의 경우, 국민의 인권과 노동권이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32조에 명시된 기본권으로서 생활체육지도자에게도 본 조례상 관련 기본법에 기반한 권리를 부여하여, 헌법상 기본권에 의한 인권침해 및 피해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노동관계 법령상의 의무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일·가정 양립 지원(안 제7조의3)의 경우, 시장에게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주체인 자치구 체육회의 임신, 출산, 육아 환경 등 법령 준수에 대한 지도는 물론, 상위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체육지도자에게 간과될 수 있었던 인권 및 노동권이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보장될 수 있어 뜻깊다”면서 “본 조례 개정으로 생활체육지도자가 일 뿐만 아니라 가정 모두에도 만족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삶의 질 확대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는 뜻도 밝혔다.

또한 ▲스포츠클럽의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안 제9조의2) 개정으로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으로 사용 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체육시설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난 ‘18년 이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생활체육시설 종목 간 격차는 여전히 계속되는 실정이나,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접근성 확대는 물론 참여율 제고 또한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시민건강과 여가생활 확대를 위한 지자체와 체육회의 노력은 물론, 체육동호회 가입의 적극적 유도 및 시설 이용 시 행사, 강습, 훈련 등 외에도 다양한 용도에 있어 사용료 감면 등을 유도해 스포츠클럽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씨름협회 2025년도 판·지도자 강습회

2025. 3. 4.(화) - 5.(수)
충청북도 보은군 <레이크
주최 대한씨름협회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

영남대 씨름부, 2년 연속 '대학부 우수팀' 선정 ...허용 감독 우수지도자상 수상

영남대학교 씨름부가 대학 씨름의 최강자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난 4일 충북 보은군에서 열린 대한씨름협회 2024년 시상식에서 영남대 씨름부가 대학부 우수팀으로 선정됐으며, 허용 감독이 우수지도자상을 받은 영예를 안았다.

대한씨름협회는 매년 각 부문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팀과 지도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부별 랭킹 1위팀에게 우수팀상과 우수지도자상을 수여한다. 영남대 씨름부는 2022년 대학부 성취상을 수상한데 이어,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대학부 우수단체상과 우수지도자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대학 씨름 최정상Of 자리를 지켰다.

영남대 씨름부 허용 감독(오른쪽)이 2024년 우수지도자상을 수상한 뒤 대한씨름협회 이준희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허용 감독은 “이번 수상은 이승호 코치를 비롯한 선수단 전원의 헌신과 학교, 학부모, 씨름부 동문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현재 선수들의 부상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위기를 극복하여 2025년 시즌에도 좋은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954년 창단된 영남대학교 씨름부는 홍현욱, 손상주, 임용재 등 대한민국 씨름계를 대표하는 장사를 배출하며 전통 강호로 자리매김해왔다. 또한, 2025년 중등임용고사 합격자(체육학부 김상현 졸업생)를 배출하는 등 씨름계뿐만 아니라 교육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200여 명 이상의 인재를 양성하며 명문 씨름부로서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성희롱 의혹 강원지역 체육회장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직원들에게 폭언, 성희롱을 하고 사적인 업무를 지시한 강원 지역 한 체육회장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폭언, 성희롱, 사적 업무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A 체육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B 씨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등에 A 체육회장에 대한 피해 사실을 알렸다.

A 체육회장은 지난해 7월 지역의 한 식당에서 업체 관계자들과 식사 후 직원 B 씨를 불러 대리운전을 맡겼다. 이후 B 씨에게 "애 갑바(가슴) 봐, 여자 D컵은 될 것 같다", "나는 여자 다 떨어지면 애 젖이나 만져야겠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에 B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원에서 '3개월 이상의 치료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도 병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체육회장은 지난 2022년 10월 전국체전 당시 울산을 방문했을 당시 B 씨에게 "땅을 보러 가야 한다"며 원주까지 운전시키기도 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등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를 진행한다.

주간 스포츠 소식

체육공단, 스포츠용품 해외인증 획득 지원 사업 추진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10_0003092837

성남시·HD현대, 정자동 제설차량기지에 주민체육시설 조성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0118900061?input=1195m>

“예배당을 체육관으로… 장의자 없애니 아이들 뛰놀아”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41500352&code=23111111&cp=nv>

[생생국회] 전용기 “화성 동탄복합체육센터 건립 추진할 것”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0580258>

NH농협 가평군지부, 1억원 후원금 가평군체육회 전달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310500055>

서울시의회 “올림픽 유치 바쁘는데 서울시체육회장 2개월 휴직”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06_0003088162

장충체육관, 작년 30만6000명 방문…2년 연속 30만 돌파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06_0003089341

산청군가족센터, 유아체육 프로그램 운영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438>

광주시체육회,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광장 사업 전개

<http://www.jnilbo.com/76343920253>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